

마음 열기

찬송가 283장을 함께 부르시다.

최근 나의 심령 상태를 점수로 매겨 보시다. (10점 만점)

말씀 나누기 요나1장11-17절, “언제나 은혜를 주심”

요나가 자신을 바다에 던지라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니느웨가 회개하도록 하기 위하여 요나를 선지자로 세우셨고, 니느웨로 보내셨습니다. 하지만 요나는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니느웨가 회개하여 살아나는 것을 원하지 않았고, 결국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 다시스로 향하는 배를 타게 됩니다. 그런데 바다가 흉용하여 배에 탄 모든 이들이 죽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들은 이 폭풍이 누구 때문인지 가리기 위하여 제비를 뽑았고, 요나가 그 제비를 뽑았습니다. 요나는 자신이 여호와와 얼굴을 피했기 때문에 이 폭풍이 왔음을 말하며 자신을 바다에 던지면 바다가 잠잠해질 것이라고 말합니다(11-12절). 이처럼 요나가 자신을 바다에 던지라고 말한 이유는 **첫째, 하나님이 만물의 주관자임을 알고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요나는 이 거대한 폭풍을 일으키신 분이 하나님이며, 오직 하나님만이 이 바다를 다시 잠잠하게 하실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한 것입니다. 실제로 배 위의 사람들은 살기 위해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썼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것은 사람의 어떠한 방법으로도 막을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도 모든 상황과 환경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믿으며 살아야 합니다.

둘째, 요나가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했기 때문입니다. 요나는 폭풍을 통해 이 모든 일이 자신의 불순종 때문임을 깨달았습니다. 바다에 자신을 던지라는 말은, 자신이 죽을 죄를 지었다는 고백임과 동시에 죄의 대가를 죽음으로 치르겠다는 회개였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이와 같은 마음으로 회개해야 합니다. 참된 회개는 내 속의 죄를 씻어달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를 씻음 받아도, 죄 때문에 오는 고난은 여전히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죄 때문에 고난과 환란을 당할 때 그것을 모면하기 위해 회개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회개가 아니라 거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회개할 때, 죄로 오는 고난을 감당하고 죄의 대가를 치르고자 하는 마음으로 해야 합니다. 그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결코 내 버려두지 않으시고 새로운 길을 열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뱃사람들이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사람들은 요나의 말을 듣고도 처음에는 그를 바다에 던지지 않고, 힘써 노를 저어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했습니다(13절). 요나를 죽이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바다가 점점 더 흉용해지자 결국 그들은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하고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다(14절). 그리고 요나를 바다에 던졌고, 바다는 잠잠해졌습니다(15절). 그런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생명을 위해 온전히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응답을 받았습니다. 반면 하나님의 선지자였던 요나는 원수들이 죽기를 바랐고,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쳤으며 정작 기도해야 할 때 잠들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성도인 우리가 오히려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보다 더 기도하지 않고, 원망과 불평 속에 살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습니다.

우리가 요나를 바다에 던지자마자 바다가 잠잠해졌습니다(15절). 이것을 본 사람들은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며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하였습니다(16절). **하나님을 몰랐던 이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이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전파되었을 것입니다.** 요나 또한 하나님께서 큰 물고기를 예비하셔서 삼키게 하셨고, 그 물고기 뱃속에서도 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셨습니다(17절). 그곳은 **요나가 하나님을 깊이 찾고 사명을 회복하는 은혜의 처소가 되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요나에게 다시 기회를 주셨습니다. 이처럼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그 뜻은 우리를 복음으로 살리시고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배의 무리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다른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생명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요나 또한 죽음에서 건져졌고, 사명의 기회를 얻었으며, 그 사명을 통해 니느웨가 회개하여 살아났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언제나 은혜를 주시며 우리를 회복시키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을 믿고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고 누리는 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맺음말.

요나는 불순종하여 폭풍을 만났을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참된 회개로 나아갔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요나를 버려두지 않으시고, 다시 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요나 뿐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과 니느웨까지 복음으로 살려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고난을 마주하며 참된 회개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 때에 우리를 언제나 살리고자 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 일어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으로 나아가기

말씀의 은혜를 나눕시다.

1. 현재 내가 하나님 앞에 저지르고 있는 불순종은 무엇인가요?
2. 내가 하고 있는 회개는 ‘거래’인가요? 죄를 씻음받기 위해 고난조차도 감수하고자 하는 ‘회개’인가요? 되돌아 봅시다.
3. 폭풍이나 물고기 뱃속처럼 소망이 없을 때, 하나님이 찾아와주셨던 경험이 있나요?

말씀을 따라 결단하며 기도합시다.

1. 죄의 대가와 부끄러움을 감당하려 하지 않았던 것을 회개합니다.
2. 성도이지만 오히려 하나님을 더 의지하지 않았던 것을 회개합니다.
3. 언제나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은혜안에 거하게 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신앙백과 _ “기쁨 : 구속의 은혜를 깨달은 자가 누리는 복”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구원하고 거룩하게 하며 우리의 삶을 지탱하는 놀라운 신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공동체 속에서’ 서로에게 은혜의 통로가 되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여러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은혜의 흐름을 방해하는 공동체 속의 장애물에는 크게 ‘교만’과 ‘두려움’이 있습니다. ‘교만’은 ‘스스로의 자격을 증명하려는 마음’입니다. 교만은 단순히 은혜로 용납받는 것에 만족하지 못하게 합니다. 이러한 교만은 ‘타인에게 인정받으려 하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또는 ‘익숙한 이들과의 어울리며 외부인을 거부하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이러한 모습들은 결국 은혜의 흐름을 막게 됩니다. ‘두려움’은 ‘나의 본모습이 탄로 날까 봐 숨어버리는 모습’입니다. 나의 연약하고 깨어진 본모습이 알려지면 거절당할 것이라는 염려 때문에 죄를 숨기거나 변명하는 태도입니다. 두려움은 나의 잘못이 드러날 때 변명하고 축소하며 핑계를 대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또는 약점을 들킬까 봐 과도하게 자신을 감추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이러한 두려움은 정직한 소통과 회복을 방해하고, 결국 은혜의 흐름을 막게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모든 장애물은 복음으로 극복하고 이길 수 있습니다. 복음을 통하여 은혜의 공동체가 만들어지고 회복되는 방법은 성경에 너무나도 잘 나타나 있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능력보다 하나님과 복음을 드러내시고 하나님께 인정받으려 힘쓰셨던 모습을 우리는 본받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복음에 의지하여 약자를 용납하고 그들에게 먼저 다가가신 것처럼, 우리도 복음만 드러낼 때 차별 없이 서로를 용납하고(약2:1) 타인의 유익을 함께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롬12:15). 또한 예수님이 복음을 위해 십자가의 부끄러움을 참으셨기에, 우리 역시도 복음을 위해 담대하게 나의 연약함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겸손과 온유로 서로를 용납하며(엡 4:2), 지체의 허물이 회복되어 갈 수 있습니다(갈 6:1).

은혜가 충만한 공동체는 내면의 교만과 두려움을 정직하게 직면하고, 그 사슬에서 우리를 해방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조건 없이 받아주신 것처럼, 우리도 성령님을 의지하여 지체들을 용납할 때 은혜로운 공동체가 형성됩니다. ”복음 중심 공동체”, 생명의 말씀사

FAMILY 나눔

2026년 6월 21일

언제나 은혜를 주심

요나 1장 11-17절

